

자기소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했습니다. 대학 학과도 제 성향에 맞게, 산업공학과가 기술들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통계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database 과목을 수강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DB 강의를 2017년 하반기에 수강했으며, 이후 분석 공부를 할 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추천으로 인공지능 기초는 스터디에 참여했고, 응용 분야들 중 하나인 자연어 처리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연어 처리가 사람과 매우 가까운 기술이라 느꼈고, 계속 공부하여 2018년 11월 부터 한빛소프트에서 text/audio chatbot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결과물을 회사 내/외부적으로 시연하는 등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컴퓨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대학원 입학 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삼성청년SW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기초 Python 언어 및 web 개발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기본적인 web service의 작동 원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퇴사 목적이었던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 입학 을 위해, CS 학부 과정의 기초과목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MOOC을 통해 C/C++ 언어, 자료구조, OS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입학 직전, Kakao의 추천팀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인턴십 경험은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데,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공지능을 접한 이래로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함을 계속해서 깨달았으며, 제가 정말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며, 파악을 기반으로 응용SW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싶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두 가지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구로서 활용해야 할 컴퓨터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의 ML system 최적화 연구실에 진학했습니다.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분산 학습과 같은 DL system 최적화입니다. 데이터의 양과 분석 모델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제가 공부한 최적화 기술들은 앞으로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좋은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구 업무는 물론이며, 실제 서비스 개발 업무에서도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점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장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곳들 중 하나가 대학원의 연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정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비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Undefined에 입사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eSports 도메인을 다뤘으며, 유일한 AI 개발자로서 유관 부서 직원들과 협업하며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루는 세 가지 모듈들을 개발했습니다. 데이터를 관찰했으며,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파악하여 응용 SW들을 설계/개발/배포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입사 시점에 퇴사 가능성을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들과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데이터 특성에 기반한 응용SW 설계 능력을 길렀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ML 모델 설계, MLOps 등 앞으로 마주하게 될 task들이 매우 기대됩니다.